

## 미래에 할 핀란드어 회화

이 글은 아직 쓰이지 않은, 어쩌면 쓰이지 않을 책에 대한 이야기이다. 십여 년 전 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회화(會話)’에 대한 책을 쓰려고 생각했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등 특정 언어의 대화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내가 구상한 것은 회화라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순서로 조직되고 학습되며 실행되는가를 고찰하는 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책이었다.

회화는 한자 조합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관행상으로는 외국어로 나누는 대화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나의 질문은 이러했다. 말의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발화의 레퍼토리를 쌓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즉, 내가 어떤 특정 언어의 회화책을 쓰는 가상의 저자 입장에서 언어 용법들을 기술해본다면, 언어 보편적인 대화의 순서, 즉 같은 시간을 공유하거나 하지 않는 두 사람이 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책의 발단이었다.

이 가상의 저자 입장에서 기술할 언어로는 핀란드어가 선택되었다. 핀란드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돌고, 핀란드 교육이 이상적인 모델로 선전되었던 시기라서만은 아니었다. 핀란드어는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어떤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은, 소위 다른 어족에 속한 언어였기 때문이었다. 또, 낱 광고에 나온 “휘바휘바”라는 어구를 빼고는 그 언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다른 이유였다. 이 작업은 완전히 백지인 언어 목록으로 시작할 때 의미가 있었다. 또한, 처음 이 책을 생각해냈을 당시에는 핀-한 회화집, 심지어 사전조차 없었다는 이유도 더해졌다. 하지만 특정 언어가 무엇이든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책은 사회적 언어의 개별 용법보다는 언어의 일반적 사회성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회화/대화는 세 차원에서 실현된다.

- (1) 교과서 속에 기술되는 대화의 이상적이고도 가설적인 순서:  
회화 교과서에서는 대화 목적의 긴급성, 표현의 사용 빈도,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패턴에 따라 대화의 파편들을 배열한다. 이는 실제 개인이 겪게 되는 대화 현실에

대한 예측과 요약이다. 누구도 이 대화의 보편 절차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으나, 또한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없다. 그 양식대로 발화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같은 대화만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모든 대화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람도 다른 상대와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다른 시간에 같은 대화를 하는 경우도 없다.

(2) 허구의 두 개인이 발화하는 독백 서사를 통한 대화의 재구성:

이 책에는 회화책 저자라는 목소리를 제외하고 두 명의 허구적 서술자가 있다. 그들은 핀란드어를 배우는 두 명의 학습자이다. 그들은 둘 다 같이 핀란드어를 공부하는 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삶을 1인칭의 시점에서 기술하는 서간문을 쓴다. 회화책이 제안하는 하나의 학습 단위에 따라 두 서술자가 번갈아가며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일화를 말한다. 이들은 주어진 핀란드어에 상응하는,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한국어를 발화한다. 이를 읽는 이들은 각 장에서 한 사람이 발화를 독점하는 화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경청을 도맡는 청자가 되는 관계를 발견하고, 이 관계가 계속 교체되는 불균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대화를 자발적으로 조합하게 된다.

(3) “지금”의 어긋남으로부터 형성되는 서브텍스트 속의 대화:

텍스트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서브텍스트는 독자가 단서의 퍼즐을 맞추는 책의 후반부에서 텍스트 내부로 편입된다. 책이 마지막으로 향해가면서, 독자들은 자신들이 조합한 대화를 다시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중요한 트릭은 시간이다. 대화는 본질에서 “지금”을 공유한 사람들의 행위이다. 화용론적으로 “지금”이라는 지사(指詞, deictic)는 발화자에게서부터 유래된다. 지금(Now)이란 무엇인가? 발화자인 1인칭의 내(I)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시점이다. 가령,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발화 시점에 따라서 아침 8시가 될 수도 있고, 저녁 9시가 될 수도 있다. (실로 나는 이 글을 며칠에 걸쳐 쓰고 있으니 “지금”은 심지어 여러 날이 된다.) 대화는 화자의 “지금”에 청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대화는 시간의 선을 함께 걸으며, “지금”을 교환하고 교대하는 여행이다. “내”가 말할 때 듣는 “너”는 “지금” 위에 같이 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나”와 “너”를 바꾸고, “지금”을 정의할 힘을 건네준다. 새롭게 정의된 “지금” 위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이 있다. 여기서 대화의 중요한 속성이 강조된다. 메시지는 그대로이지만, 대화에 참여한 이들이, 혹은 서 있는 시간이 다르다면 그 메시지가 구성한 대화의 세계는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간의 속임수가 만들어낸 대화의 재설정엔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어적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과 읽히는 시간이 다른 현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어긋난 지금”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지만, 시간 차 동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존재는 반대로 유령의 대화를 진짜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 회화책의 가상 목차, 즉, 실러버스는 국내에 출간된 유일한 핀란드어 학습서인 『핀란드어 필수문법』(프레드 카를손 지음)과 핀란드어를 영어 화자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첫 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 (Tervehdys)

<주요 구문>

Hei! (안녕! — 비격식이지만, 낯선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 / Moi! (안녕! — 친한 사이에) / Hyvää päivää. (안녕하세요.)

Hei Hei! (안녕! — 헤어질 때) / Moi! Moi! (안녕! — 헤어질 때) / Näkemiin. (안녕히. — 헤어질 때)

인사에는 그 기능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주술 관계도 명확히 따질 수 없다. 완료된 문장이 아닌 단위, 그러나 사람이 많이 말하는 어구이다. 모든 대화는, 관계는 이렇게 인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대화의 종료를 표시하는 언어적 이정표를 요구한다. 한국어에서는 시작과 끝이 “안녕”으로 점찍어진다. 핀란드어에서는 같은 어구를 두 번 반복하면서 종지부를 찍는다. 형태는 다르지만 시작과 끝이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공교로운 우연이 있다.

이 장에서는 A가 편지를 쓴다. A는 종지부가 찍히지 않은 사건, 관계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안녕히”라는 인사 없는 작별이 있다. 이는 애도가 없는 상실로, 프로이트적 개념으로 멜랑콜리아가 여기서 발생한다. 1장은 A가 느끼는 우울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한다.

(2) 소개 (Perehdytys)

<주요 구문>

Hei, minun nimeni on Jane. (안녕, 내 이름은 재인이야.)

Minä olen Jane. (나는 재인이야.)

Hauska tutustua. (만나서 반가워.)

대화의 초반에는 언제나 서로의 정체를 탐구하는 단계가 있다. 대화자는 자신의 신원을 먼저 밝히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발화되지 않은 질문, “Kuka sinä olet?(너는 누구지?)”가 잠재해 있다. 그러기에 서로 호기심이 없는 관계에서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허하지만, 대화는 단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진행된다. 대부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싶지 않아도 계속 흥미 없는 공 던지기를 하듯 공을 주고받는다. 그리하여 “너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어도 그런 척 가장하면서, 나는 나를 설명한다.

두 번째 장에서 편지를 쓰는 화자는 B이다. 그는 자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도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 바로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이다. B는 그 상대에게 자기를 소개하지만,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너는 누구지?”라고 차마 묻지 못한다.

(3) 예절 (Käytöstavat)

<주요 구문>

Kiitos paljon. (정말 고마워.) / Ei se mitään. (별거 아냐.)

Olen phoillani. (미안해.) / Ei se mitään. (별거 아냐.)

어떤 말들은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상관없이 발화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이런 화행적 발화들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요구되고, 힘을 갖는다. 고맙다는 것과 미안하다는 그 말을 명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 요구되는 화행이 적절히 수행되는 것, 이를 예절이라고 부른다. 감사와 사과는 예절의 핵심 행위를 구성한다. 핀란드어의 감사와 사과의 경우 대담으로 둘 다 “Ei se mitään”을 쓸 수 있다.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야기는 다시 A에게로 돌아간다. A는 감사도 사과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그리하여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대답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사과로 치환된 감사를 받는다. 이 세계의 언어에서는 고맙다고 말해야 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날부터 그는 미묘하게 바뀐다. 인간은 예절을 갖춘 대화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4) 긴급 상황 (Hätätapaus)

<주요 구문>

Auttakaa minua! (제발 도와줘.)

Varo! (조심해!)

대화는 본질적으로 인접쌍(adjacency pairs)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발화는 반드시 특정한 두 번째 발화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인사는 상대방의 인사를 기대한다. 사과는 괜찮다는 표현을 기다린다. 요청은 수락이나 거절을 예상한다. 하지만 긴급 상황은 이런 인접쌍의 구조를 저버린다. 긴급이란 기다리고 예측하고 기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에 말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바란다. “도와줘”와 “조심해”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성공하는 말들이다.

B가 다시 1인칭을 차지한다. 그는 항상 SOS를 마음에 품고 살지만, 어떻게 신호를 발신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혹은 그가 보내는 신호는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외국어를 배우면서 “도와줘”라는 말을 말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세계에는 대답받지 못하는 구조 요청들이 만들어낸 비극이 많지만, 누군가 도와주러 오는 행운이 드물게 있다는 것도 안다.

(5) 숫자와 시간 (Numero/ Aika)

<주요 구문>

Mitä kello on? (몇 시죠?)

Kello on viisi. (다섯 시예요.) / Se on noin kaksi. (대략 두 시예요.)

Milloin? / Koska? (언제?)

nyt (지금) / silloin (그때는)

eilen (어제) / tänään (오늘) / huomenna (내일)

회화책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분기점이 있다면, 아마 이 지점이 아닐지. 이제 언어의 기본 사교적인 기능 표현을 소개한 후에, 책은 이제 화자들이 정말 나누려는 메시지를 표현할 말을 제시해야만 한다.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숫자이다. 인간은 삶에 숫자로 눈금을 매겼다. 숫자는 시간의 진행과 기억의 선명함, 가치의 정도에 대한 개념 은유이다. 우리는 언어 보편적 기호인 숫자로서 시간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제 다시 A가 나온다. 그가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이편에서 밝혀진다. 그는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다. 그는 여기서 8년을 일했다. 그가 여기서 보낸 기억이 8이라는 숫자와 ‘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환산된다. 숫자는 보이저호의 골든 레코드에도 실려 있듯이, 특정 언어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언어의 측면에서는 그를 표현하는 항목은 필수적이다. 반면, “몇 시죠?” 같은 표현은 대체로 불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시간 표시 기계를 지니고 있고,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대체로 사교적인 기능을 지니거나, 그 안에 다른 함의를 품고 있다. “몇 시죠?”가 “이제 끝낼까요”가 된 것처럼. 시간을 묻는다는 건 대화에서는 또 다른 신호가 된다. “지금”에 다른 의미를 심는 말이다.

이 책은 이런 소재목의 장들을 계속 반복한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운다. 그 다음에는 “지금 어디 있어?”라고 묻고 대답하는 법을 익힐 수도 있다. 책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말들로 모국어에서 비어 있던 창고를 채운다. 마침내 그들이 채워가는 언어로는 대화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점까지 말이다. 회화책에는 대화 참여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예문은 나와 있지 않다. 회화책을 따른다면 A와 B의 대화는 어느 순간 단절을 맞는다. 어쩌면 그들의 대화는 수없이 많은 지상의 대화들처럼 오래전에 단절되었을 수도 있다. 쌍방이 존재했다고 믿은 그 말은 청자 없는 독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대화가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말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대화의 다음 순간은 항상 다음 사람이 발화하는 그 지점에 있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기다릴 뿐이다.

이 책의 제목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이 책의 제목은 『미래에 할 핀란드어 회화』이다.

<참고 자료>

프레드 카를손, 『핀란드어  
필수문법』, 송기중 역주, 서울:  
뉴딜기획, 2008  
E. Light, *Learn to Speak Finnish*.  
Kindle Edition, volume 1 ~4,  
2015

유튜브 채널

Learn Finnish with  
FinnishPod101.com  
(youtube.com/channel/  
UCli9y7gMxqE7aOihRk2VPIA)

웹사이트

The Finnish Teacher  
(thefinnishteacher.weebly.com)  
Speak Languages Finnish  
(www.speaklanguages.com/  
finnish)  
A Taste of Finnish  
(tasteoffinnish.fi)  
bab.la, English-Finnish dictionary  
(en.bab.la/dictionary/english-  
finnish)



